



## 투루판에서 천지 (서역의 마지막 날)

중국에서 마지막 날이 밝았다. 지난 일주일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저 꿈을 꾸는 듯하다. 아침은 약간 서양식 같은 중국식이다. 이 동네가 그런 모양이다. 오늘은 천지를 보러간다.



투루판을 빠져 나가려니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좀 알았더라면 덜 아쉬울 것 같다. 해발 -154m라는 아이딩호를 못 본 것이 너무 아쉽다. 송씨는 못가는 곳이라지만 갈 수 있는 곳일 것이다. 분명! 포도 골짜기를 들르지 못한 것도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기가 안 좋긴 하지만. 나가는 길에 포도 건조장이라도 자세히 볼 수 있게 부탁하였다.



대규모의 포도 건조장이 있었다. 큰 마을을 이루다시피하고 있었다. 마을에는 아침을 준비 중인 모양이다(사진). 건조지역이라 우리의 한테 부엌과 비슷한 곳에서 음식을 한다.



덤으로 찍은 사진인데 좀 불안하다. 필자가 찍으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아니나 다를까 아줌마들이 열 받았다. 나중에 들으니 그 집 아저씨와 싸움도 했다고 한다.

투루판을 빠져 나오는 길도 시원하였다(사진). 끝이 안 보이게 쪽 뻗어있다. 우리는 가는 먼지 속에 갇혀 있다. 밝은 고요해 보이나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차이지만 마치 120km 이상을 달리는 듯 한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가끔 지나는 사람들을 보니 걸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자동차가 뒤집어진 것도 보인다. 겁나게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한 시간쯤을 달렸을까 드디어 앞이 훤히 온다. 이제 그 먼지 속에서 벗어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바람이 잦아든 것은 아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러보





니 트럭의 운행을 막기 위하여 다른 차가 그 앞을 막고 있다 (사진). 정말 바람이 심한 모양이다. 차에서 내려 보니 걷기가 만만치 않다.

창밖으로 바뀌는 경치가 이제 텐산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한다. 서서히 경치가 바뀌고 있다. 멀리는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설산도 보이는 것 같다. 이제 해발 0m에서 아마도 2,000m 쯤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점차 고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거의 오아시스를 보기도 어렵다. 어찌다 한 두 체의 사람 살지 않는 듯 한 집이 보일 뿐이다.



이제 막 고개를 다 넘어섰나 하는데, 텐산이다(사진). 차는 설 수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 이곳에선 세워주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맘만 있으면 어디를 못 세울까만, 세워주지 않는 것 같다. 분명 저런 설산을 다시 볼 수 있다 하였





는데, 그 후론 없었다.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모르는 게 문제였다. 길 건너로는 염호가 길게 발달하였다(사진). 역시 그림의 떡이다. 차가 설 수 없으니. 아무튼 하얗게 보이는 것이 소금이라고 한다.



죽어라 달려 휴게소란 곳에 들렀다. 그곳 사람들은 친절하게도 뒤로 가면 설산이 보인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이제 허당이다. 아까 보았던 설산 모습만 한 곳이 없다. 그래 내가 가이드여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까? 휴게소에선 이유를 모르겠는데 모든 가게가 공측(共廁)을 표시하고 있다(사진). 공측은 들어가 보질 못하였다(사진). 설산 때문에 슬금슬금 화가 나더니 슬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멀리 풍력 발전단지가 다가온다(사진). 그냥 서도 그만, 가도 그만인 듯하다. 차는 굳이 섰고, 게다가 고장이 났는데 30여분을 지체하였다. 발전기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 구입 값은 사람에 따라서 30만에서 300만 위안까지 한단다. 담당 관리는 그것 하나 잘 사면 집도 살 수 있다 한다.

이제 우리의 첫 도시이자 최종 도시인



우루무치가 바로 앞이다. 토요일에는 결혼식이 많다고 한다. 식당은 아니나 다름없다. 왓지떨이다. 마지막 정찬을 하였다. 점심 후 이슬람 시장이 바자르 견학이 있다. 송씨의 말이 무서워 들을 생각도 없다. 시장 입구에는 신장국제시장이란 간판이 있고 미나레트가 이슬람 지역임을 잘 보여준다. 참고로 송씨는 위글쪽에 대한 감정이 좋은 편은 아닌 듯 느꼈다.



동네는 주로 이슬람 문화권인 듯 하다. 모든 이들이 시내로 빠져 나왔는지 어느 도로, 골목이든 정신없이 북적인다. 어디든 북적 북적이다. 그저 빨리 천지로 가고 싶을 뿐이다.



잠시 후에 만난 학생들은 신이 난 모양이다. 양손에 잔뜩 들고 있는 친구도 있고, 시장을 한 번 누빈 모양이다. 그래 누구라도 즐거워야지. 자동차가 시내를 빠져나가기에도 힘들 정도로 도로조차 북적인다.

시내를 벗어나니 여전히 사막 풍경이



다. 차츰 천지가 가까워온다는 느낌이 든다. 개울이 흐르고 있다. 점점 쿼쿨 물이 넘쳐난다. 계곡은 초록으로 덮혀 있다. 드디어 고대하던 경관인 카자흐 족의 유르트 촌락도 나타난다(사진).

카자흐 족 중의 일부는 상업으로 살아간다.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된 것이다. 일종의 B&B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이다. 길에 나와 호객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옷도 세련되어 보였다. 어느 안내 책자에 의하면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소개하고 있다. 가격이나 맛, 분위기 등에서. 물론 우리는 천지로 달렸다. 유목민이 이사를 가는 모양이다. 길에서 대규모의 양떼 무리를 만났다(사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양떼를 만난 적이 있는데, 사뭇 다르다. 지금은 빵빵거리고 난리이다.



천지는 모든 것을 잊게 하였다(사진). 그냥 모든 것이 시원하다. 애당초 코스에 없던 것을 돈을 더 내면서 온 곳인데, 역시 오길 잘 한 것 같다. 빙하호란 것이 어디서 그렇든 시원하다. 모두 즐거워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해발 1,980m라고 한다. 종퇴석이 쌓여서 호수



를 이룬 것이다(사진). 필자는 처음으로 종퇴석이라 의식하고 그 지형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권교수님 덕분에. 종퇴석을 따라서 계속 걸었다. 이것저것 볼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지와 저 멀리의 설산을 보는 것이다. 다만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어디로 가면 뭐가 좀 달라질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왔다 갔다 시간을 끌었다. 여기서 내려가면 중국 서역 땅 마지막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천지에서 내려오던 필자는 뱃속에 문제가 생겼음을 실감해야 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모양이다. 이제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 때문일까? 보고 싶은 것을 다 못 본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일까? 필자는 급격히 힘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껴야 했고, 급기야 마지막 진수 성찬을 눈으로만 즐겨야 했다. 수속을 끝내고 공항에서 마신 녹차 한잔이 그렇게 힘이 될 수 없었다. 권교수님도 있는 힘을 다 쏟아낸 듯하였다. 정말 죄송하게도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없었다. 비행기는 새벽 한 시 경에 출발하였고, 인천에는 그날 6시 20분경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집에까지는 잘 갔지만, 그 후로 3일 동안 필자는 긴 꿈에서 깨어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서역! 역시 가 볼만 땅이었다. 어딘 들 그렇지 않는 땅이 있겠나만, 그간 멀리 해왔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필자는 강의 시간에 타클라마칸과 고미사막을 옆 동네 이야기 하듯 해왔다.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적어도 이제 고비를 알게 되었다(사진). 그리고 타클라마칸의 가장자리라도 보았다. 또한 오아시스를 보았다. 세상은 역시 공평하였다. 한 면만 보면 서역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다.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특히 그 대상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은 필자 같은 사람이라면 살아남기 어려운 열사의 땅이다. 아주 숨이 막히게 열기가 콧구멍을 파고들기도 하고 거기에 가는 먼지까지 폐를 찌른다. 그러니 공평하다 할 수 밖에. 유산도 남겼지만 그런 자연까지 떠 넘겼다. 발만 움직이면 솟아오르는 먼지를 필자는 견딜 수 없다. 그곳에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찌 헤아리거나 할 수 있을까?(사진) 그러니 주어진 환경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먹



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필자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보았을 때처럼 행동하라고 한다. 룸메이트였던 주사장님은 이제 사자처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먹잇감은 내게로 오지 않고 달아나 버린다. 만약 필자가 서역에서 어슬렁거렸으면 그런 고통의 시간은 없을지 모르나 그보다 훨씬 더 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